전주 체류 잼버리 대원 안전·즐거움 책임진다

시, 12일까지 4개국 2000여명 대원 전통 자원 활용 고유문화 소개·다양한 체험 등 진행

전주시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야영지를 철수해 지역에 머무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과 즐거움을 책임지기로 했다.

전주시는 4개국 2000여 명의 세계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농수산대학교로 각각 숙소를 옮겨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알찬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당장 타 시군과 협조를 통해 미니잼버리를 추진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국립전주박물관 등 풍부한 전통 자원을 활용해 전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도와 타시군, 지역 대학들과 소통하고, 공무원과 각종 자원봉사단체 등을 총 동원해 전주와 전북을 알린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를 방문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전통 공예품을 손수 만들어 보는 전통문화체험을 했다.

전주를 찾은 39개국 1646명의 세계잼버리 대원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전통 공예품을 손수 만들어 보는 전통문화체험과 한옥마을 스탬프 투어, 풍물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물했다. 이를 위해 하루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체험강사, 의료진들이 투입돼 분야별로 빈틈없이 세계 청소년을 맞았다.

특히, 세계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소방관·의료인력 등이 상주하는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했다. 폭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활동지인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로비와 한벽문화관 세미나실, 공예품전시관 누리관, 경기전여행자라운지 1·2층, 한옥마을도서관 등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계 청소년들이 전주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중장년·가족돌봄 청년 일상 돌본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층(만40세~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3~39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등에게 돌봄·가사지원,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로, 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원 내용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서비스'(월 12~72시간)와 심리지원과 건강생활지원, 청년힐링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필요도에 따라 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 중 개인의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아 전주시가 선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어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만 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으며, 심사를 거쳐 16개 이내의 기관을 선정하고 바우처 기관으로 등록하는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이용자를 모집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용자 모집은 향후 전주시 누리집과 35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역 개선사업 추진… 임시주차장 이용·차량 진입 통제

전주시는 전주역 개선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주역 내 주차장을 10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주역 주차장은 광장부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택시승강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은 운영 종료를 앞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역 후면에 149면의 임시주차장(유료)과 전주역 바로 옆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조성부지에 9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해 전주역을 찾는 방문객은 오는 11일부터 2개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전주역 개선사업 중 광장 부분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광장 내 자가용 출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역 개선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450억(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돼 △역사 증축 △주차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이 핵심이다. 시는 개선사업이 진행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차 이용 시에는 가까운 임시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섭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주역을 새롭게 바꾸는 이번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먼저 모든 시민에게 깊은 양해를 구한다"면서 "전주역을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차량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주역 후면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역 임시 주차장 위치도

전주 도서관 여행 굿즈 개발 공모

9월 4일까지 기념상품 개발 위해 진행

전주시가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기념상품을 발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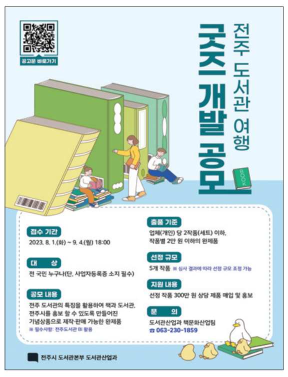
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전주지역 도서관의 특징을 활용해 책과 도서관, 전주시를 홍보할 기념상품 개발을 위한 '전주 도서관 여행 굿즈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역의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전주도서관 BI를 필수로 활용한 기념상품이면 출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각각 2작품(세트) 이하, 작품별 2만 원 이하의 완제품을 제출하면 되며, 서류접수 기간 내에 참가신청서와 상품개발계획서 등의 서류를 전자우편(yhy310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제품을 접수한 후, 2차 실물심사를 거쳐 상품성과 상징성, 디자인 등을 고려해 총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작에 대해서는 실제 굿즈 제작 및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전주 도서관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주 도서관 여행 굿즈 개발 공모 전단지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상품을 발굴해 책의 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전주도서관을 기념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하고 싶은 전주만의 도서관 굿즈가 발굴 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30-185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전주시가 찾아가는 '1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감량과 환경 인식개선을 돕고 있다.

시는 8월 한 달간 시민들의 환경보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약 7개 기관 5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돕고, 전주지역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당 교육은 수요조사시 45개 기관, 5,600여명이 신청할 만큼 많은 인기를 자랑했으며 시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강사 9명을 양성하는 등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전주시민 2025명이 이 교육을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교육 신청 기관 중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도 포함돼 있어 미래세대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청소문제는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나서 쓰레기 감량을 실천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1회용품 줄이기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